

4집 앨범 낸 인디뮤지션 지미 스트레인 “내 음악적 영감 기록하는 데 만족”

글 박경은·사진 정지윤 기자 king@kyunghyang.com

입력 : 2016.09.05 20:42:00 | 수정 : 2016.09.05 20:47:11



몇 년 전 인기를 끌었던 김규삼 작가의 웹툰 <천리마 마트> 팬들이라면 지미 스트레인이라는 이름이 제법 낯익을지도 모른다. 극중 헤비메탈 밴드 리더 조민달의 테마곡을 만들어 팬들 사이에 큰 호응을 얻었던 뮤지션. 순수한 ‘팬심’에서 시작된 그의 작업은 작가를 감복시켰고 결국 <천리마 마트> 정식 OST를 만들어 발표하는 훈훈한 미담의 주인공이 됐다.

올해로 10년째 ‘직업 음악인’으로 살고 있는 지미 스트레인(36)은 대중적으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뮤지션이다. 하지만 그의 음악적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곡을 쓰는 것부터 연주와 녹음, 마스터링 등 음반 제작의 전 과정을 스스로 해내는 인디뮤지션들이 꽤 있지만 그는 이 시대 진정한 의미의 인디뮤지션이라는 정체성을 구현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그는 4집 앨범을 냈다. 5년간의 기획과 준비 끝에 나온 결과물답게 60곡이나 되는 신곡을 6장의 CD에 담았다. 피아노 연주, 포크, 일렉트로닉, 록, 헤비메탈에 이어 ‘뽕끼’ 충만한 성인가요까지 망라했다. 회화적이고 서정적인 소품부터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외침 등 콘텐츠의 스펙트럼도 넓다. 대중음악평론가 한동윤은 “훌륭한 표현력과 깊은 사색이 어우러진 곡”이라며 “이 대범한 싱어송라이터의 작업은 한국 대중음악사 초유의 일”이라고 평가했다.

활동방식도 여느 뮤지션과는 사뭇 다르다. 그는 지금껏 공연이나 외부활동 없이 오로지 앨범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일에만 집중해왔다. 앨범이 나온 뒤에도 굳이 알리기 위해 애쓰지 않았고 이렇다 할 홍보 활동을 한 적도 없다. 그저 앨범을 만드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 온 셈이다. 그는 “남들이 어떻게 내 음악을 들어줄까 하는 것보다는 내 속에서 나오는 음악적 영감과 에너지를 그때그때 저장하고 기록하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음악 애호가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음악에 빠져 자랐지만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의 꿈은 과학자였다. 생명공학 과에 진학했으나 막연했던 상상과 현실은 달랐다. 고민 끝에 군복무를 마친 뒤 학교를 중퇴했고 서울 재즈아카데미에 등록했다. 마음껏 기타를 치며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존경하는 뮤지션 지미 페이지, 짐 모리슨, 제임스 헛필드의 이름을 따 지미 스트레인이라는 활동명을 지었다. 록과 일렉트로닉, 팝, 메탈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썼다. 2008년 <이모션 프리퀀시>를 시작으로 이듬해 <퓨처> 등 앨범을 발표했다. 모든 곡은 영어로 썼다. 외국에 살았던 적은 없지만 어릴

때부터 팝 음악에 심취했던 터라 영어로 가사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다. 국내 음원 사이트나 유통망보다는 아이튠즈, 아마존 등에 앨범을 올렸고 해외 음악커뮤니티 사운드클릭을 통해 그의 음악을 알아보는 팬들이 생겨났다.

이쯤되면 궁금해질 법하다. 팔자 좋은 '금수저'의 자기만족적 취미생활은 아닌가 하고 말이다. 이에 대해 그는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나름 자본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노력"이라고 답변했다. 그의 답변은 또 다른 궁금증을 불렀다. 도대체 왜 음악을 하는 건지. "글쎄요. 음악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을 통해 살아 있음을 느껴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연대의식의 확인 같은 것이기도 하고요."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The Kyunghyang Shinmun, All rights reserved.